

## 기독교인의 코로나19 건강예방행위 영향 요인

### Influencing Factors of Christians' COVID-19 Health Prevention Behavior

방설영<sup>1</sup>, 제남주<sup>2</sup>, 박미라<sup>3\*</sup>

Seol-Young Bang<sup>1</sup>, Nam-Ju Je<sup>2</sup>, Mee-Ra Park<sup>3\*</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Christians' COVID-19 preventive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62 adult Christians, and the data collected were using SPSS 25.0 and AMOS 21.0 progra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ject's religious maturity level was  $4.21 \pm .55$  points out of 5 points, COVID-19 stress was  $2.86 \pm .73$  points out of 5 points, optimism bias was  $2.94 \pm 1.26$  points out of 7 points, and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 was 4 points. The total score was  $3.54 \pm .44$  points.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ubject's religious maturity, COVID-19 stress, optimistic bias, and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s,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s were faith maturity ( $r=.156, p=.012$ ), COVID-19 stress ( $r=.216$ ,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ptimism bias ( $r=.174, p=.005$ ).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higher the religious maturity, the higher the COVID-19 stress, and the higher the optimistic bias, the better the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COVID-19,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overall model was 9.4%. In the post-COVID-19 era,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promote health in the community.

*Keywords : Spiritual Maturity, Covid-19 Stress, Optimistic Bias, Covid-19,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1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3\* 교신저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mail: minerva32@cs.ac.kr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3\* Corresponding Author, Changshin Univ. Assistant Professor

E-mail: minerva32@cs.ac.kr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을 지나며 전세기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으나, 감염병 유행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전염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 신종감염병은 빠른 확산 속도와 광범위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국가차원에서의 대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1].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예배를 포함하여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2], 상당수의 교회는 대면예배에 제한을 받았으며 교회 건물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다. 성숙한 신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과 전인격적인 삶으로의 반응을 의미[3]하며, 대부분의 종교활동은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종교활동의 권고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정서적 유대감의 결여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나[4],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적극 실시(78.1%)’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예배(49.1%)’로 코로나19에서의 방역에 충실했으며[4], 교회의 근본인 대면예배를 드리면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률이 현저히 낮았다[5]. 신앙성숙도가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분노 증세를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만큼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6].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메타 분석한 Salari 등[7]은 연구 대상자의 29.6%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31.9%가 불안, 33.7%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8]은 한국인들의 48.9%가 불안을, 29%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 종교단체를 통해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종교인에 대한 분노나 혐오의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었으므로[9], 종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낙관적 편견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서 위험한 사건 및 질병 위험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편향되게 생각하는 것[10]으로,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의 네 가지 긍정심리의 통합된 개념이다[11]. 낙관적 편견은 코로나19에도 꾸준히 대면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을 향해 ‘코로나19 감염보다 예배드리는 행위가 더 중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 배경이 되었으므로 기독교인의 낙관적 편견과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과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조사하고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의 예방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과 코로나19 예방행위의 관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와 P시, U시, D시 소재 교회의 성도 중 주일 오전예배를 대면예배로 드리는 성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였으며, 연구보조원을 통해 291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불명확한 경향을 보이는 29부를 제외하고 26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의 IRB 승인(CSIRB-R202104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교회의 담임목사를 통해 교회를 추천받고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교회를 방문한 후 담임목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허락받았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익명처리되며,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종료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보조원과 연락하며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12문항, 신앙성숙도 38문항, 코로나19 스트레스 21문항, 절대적 측정 방식을 이용한 낙관적 편견 2문항, 코로나19 예방행위 10문항으로 총 83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 3.2 신앙성숙도

신앙성숙도는 Basset 등[12]이 만든 ‘기독교 신앙 심척도’를 Lee[13]가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3개 요인,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7이고, 본 연구에서는 .970이었다.

### 3.3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Kim 등[14]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COVID-19) 스트레스 척도’(COVID-19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CSSK)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CSSK는 3개 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4이고, 본 연구에서는 .936이었다.

### 3.4 낙관적 편견

낙관적 편견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낮다고 편향되게 지각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낙관적 편견은 절대적 측정 방식[15]을 통해 조사하였고, 점수는 1점부터 7점까지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6이었다.

### 3.5 코로나19 예방행위

코로나19 예방행위는 Seo와 Choi[16]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Seo와 Choi[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7이었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과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표본의 정규성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Scheffe-test를 사용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고,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영향요인에 대한 경로분석을 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변수의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5. 연구결과

### 5.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41.32 \pm 15.20$ 세 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113명(43.1%), 여자 149명(56.9%)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 116명(44.3%), 대졸이상 146명(55.7%) 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 95명(36.3%), 기혼 167명(63.7%)이었다. 거주유형은 2세대 129명(49.2%)가 다수였고, 직업유무는 있음 169명(64.5%), 경제활동 유무는 있음 171명(65.3%), 주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 152명(58.0%)이 다수였다. 현재건강상태는 좋다 144명(55.0%),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는 좋다 124명(47.3%), 또래와 비교한 건강상태는 좋다 131명(50.0%)가 다수였고, 3개월 이상 약물복용여부는 아니오 219명(83.6%)가 다수였다.

### 5.2 대상자의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과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정도

대상자의 신앙성숙도는  $4.21 \pm .55$ 점(5점 만점), 코로나19 스트레스는  $2.86 \pm .73$ 점(5점 만점), 낙관적 편견은  $2.94 \pm 1.26$ 점(7점 만점), 코로나1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특성	구분	n	%	Mean±SD	Range
연령	29세 미만	92	35.1	41.32±15.20	18-77
	30~39세	24	9.2		
	40~49세	49	18.7		
	50~59세	69	26.3		
	60세 이상	28	10.7		
성별	남자	113	43.1		
	여자	149	56.9		
학력	고졸이하	116	44.3		
	대졸이상	146	55.7		
결혼상태	미혼	95	36.3		
	기혼	167	63.7		
거주유형	혼자생활	40	15.3		
	1세대	68	26.0		
	2세대	129	49.2		
	3세대 이상	25	9.5		
직업유무	없음	93	35.5		
	있음	169	64.5		
경제활동유무	있음	171	65.3		
	없음	91	34.7		
주이용 교통수단	자가용	152	58.0		
	대중교통	81	30.9		
	도보 등 기타	29	11.1		
현재건강상태	나쁘다	20	7.6		
	보통	98	37.4		
	좋다	144	55.0		
1년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나쁘다	28	10.7		
	보통	110	42.0		
	좋다	124	47.3		
또래와 비교한 건강상태	나쁘다	29	11.1		
	보통	102	38.9		
	좋다	131	50.0		
3개월 이상 약물 복용여부	예	43	16.4		
	아니오	219	83.6		
합계		262	100.0		

Table 2. Spiritual maturity, COVID-19 Stress, Optimistic bias, and Degree of COVID-19 Preventive Behavior (N=262)

개념	하위개념	Range	Min	Max	Mean±SD	Skew	Kurt
신앙성숙도	신앙고백성	1-5	2.38	5.00	4.45±.62	-1.02	.11
	교회생활성	1-5	2.00	5.00	4.05±.60	-.35	-.26
	사회생활성	1-5	2.50	5.00	3.93±.59	.09	-.63
	계	1-5	2.68	5.00	4.21±.55	-.64	-.27
코로나19 스트레스		1-5	1.00	5.00	2.86±.73	-.18	-.01
낙관적 편견		1-7	1.00	7.00	2.94±1.26	.36	-.13
코로나19 예방행위		1-4	1.40	4.00	3.54±.44	-.17	.76

예방행위는 3.54±.44점(4점 만점) 이었다(Table 2). 정규성 검정은 왜도와 첨도의 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공변량 수정모형은 왜도지수의 절대값과 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96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차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의 제 특성은 연령( $F=2.59, p=.037$ )과 학력( $t=-3.56, p<.001$ )이었으며, 연령은 40~49세가 60세 이상보다 높았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높았다(Table 3).

### 5.4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상관관계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 코로나19 예방건강행위의 상관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행위는 신앙성숙도( $r=.156, p=.012$ ), 코로나19 스트레스( $r=.216, p<.001$ ), 낙관적 편견( $r=.174, p=.005$ )과 정적상관이 있었다(Table 4).

### 5.5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코로나19 예방건강행위와 신앙성숙도 사이의 경로계수는 .262 ( $p<.001$ ), 코로나19 스트레스 사이의 경로계수는 .230 ( $p<.001$ ), 낙관적 편견 사이의 경로계수는 .150 ( $p=.014$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9.4%이었다.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신앙성숙도 사이의 경로계수는 -.281 ( $p<.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성숙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앙성숙도에 의한 설명력은 7.9%이었다. 낙관적 편견과 신앙성숙도 사이의 경로계수는 -.264 ( $p<.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성숙도가 낮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앙성숙도에 의한 설명력은 7.0%이었다(Table 5, Fig. 1).

Table 3. Differences in COVID-19 Preventive Behavior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특성	구분	코로나19 예방건강행위		
		Mean±SD	t/F	p (Scheffe)
연령	29세 미만 <sup>a</sup>	3.12±.47	2.59	.037
	30~39세 <sup>b</sup>	3.19±.47		c>e
	40~49세 <sup>c</sup>	3.27±.38		
	50~59세 <sup>d</sup>	3.13±.43		
	60세 이상 <sup>e</sup>	2.94±.37		
성별	남자	3.12±.42	-.52	.602
	여자	3.15±.46		
학력	고졸이하	3.03±.44	-3.56	<.001
	대졸이상	3.22±.43		
결혼상태	미혼	3.10±.45	-.90	.367
	기혼	3.15±.44		
거주유형	혼자생활 <sup>a</sup>	3.03±.30	1.25	.293
	1세대 <sup>b</sup>	3.13±.45		
	2세대 <sup>c</sup>	3.18±.46		
	3세대 이상 <sup>d</sup>	3.12±.49		
직업유무	없음	3.11±.48	-.59	.553
	있음	3.15±.42		
경제활동유무	있음	3.17±.42	1.82	.070
	없음	3.07±.47		
주이용교통수단	자가용 <sup>a</sup>	3.16±.45	.52	.598
	대중교통 <sup>b</sup>	3.12±.47		
	도보, 기타 <sup>c</sup>	3.08±.31		
현재건강상태	나쁘다 <sup>a</sup>	3.18±.37	.08	.919
	보통 <sup>b</sup>	3.13±.46		
	좋다 <sup>c</sup>	3.13±.44		
1년전과비교한건강상태	나쁘다 <sup>a</sup>	3.06±.46	.42	.657
	보통 <sup>b</sup>	3.15±.43		
	좋다 <sup>c</sup>	3.14±.45		
또래와비교한건강상태	나쁘다 <sup>a</sup>	3.09±.48	.21	.811
	보통 <sup>b</sup>	3.13±.42		
	좋다 <sup>c</sup>	3.15±.45		
3개월이상약물복용여부	예	3.18±.45	.66	.508
	아니오	3.13±.44		

Table 4. Correlation of Spiritual maturity, COVID-19 Stress, Optimistic bias, and COVID-19 Preventive Behavior (N=262)

		신앙성숙도				5	6	7
		1	2	3	4			
		r(p)	r(p)	r(p)	r(p)			
신앙성숙도	1. 신앙고백성	1						
	2. 교회생활성	.724 ( $<.001$ )	1					
	3. 사회생활성	.541 ( $<.001$ )	.681 ( $<.001$ )	1				
신앙성숙도	4. 계	.913 ( $<.001$ )	.935 ( $<.001$ )	.726 ( $<.001$ )	1			
5. 코로나19 스트레스		-.300 ( $<.001$ )	-.240 ( $<.001$ )	-.131 (.033)	-.281 ( $<.001$ )	1		
6. 낙관적 편견		-.186 (.003)	-.297 ( $<.001$ )	-.182 (.003)	-.264 ( $<.001$ )	.414 ( $<.001$ )	1	
7. 코로나19 예방행위		.123 (.047)	.165 (.007)	.123 (.047)	.156 (.012)	.216 ( $<.001$ )	.174 (.005)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VID-19 Prevention Behavior (N=262)

내생변수	외생변수	B	SE	$\beta$	CR	p	SMC
코로나19 예방행위	신앙성숙도	.208	.051	.262	4.122	$<.001$	.094
	코로나19스트레스	.138	.037	.230	3.745	$<.001$	
	낙관적 편견	.052	.021	.150	2.450	.014	
코로나19스트레스	신앙성숙도	-.371	.079	-.281	-4.725	$<.001$	.079
낙관적 편견	신앙성숙도	-.607	.137	-.264	-4.426	$<.001$	.070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n;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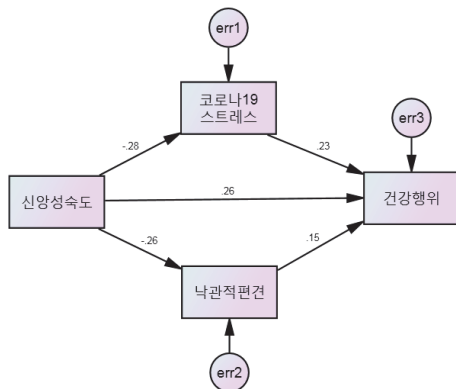


Fig. 1 Influencing Factors of COVID-19 Prevention Behavior

신앙성숙도와 코로나19 예방행위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낙관적 편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레핑 기법을 이용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신앙성숙도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정적영향( $\beta=.262, p<.001$ )을 미쳤지만,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낙관적 편견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 $\beta=-.104, p=.013$ )을 미쳤다. 그러나 신앙성숙도의 총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즉,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는 높아지지만, 코로나19 스트레



Table 6. Verification of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N=262)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beta(p)$	간접효과 $\beta(p)$	총효과 $\beta(p)$
코로나19 예방행위	신앙성숙도	.262(<.001)	-.104(.013)	.158(.017)
	코로나19스트레스	.230(<.001)	-	.230(<.001)
	낙관적편견	.150(.014)	-	.150(.014)
코로나19스트레스	신앙성숙도	-.281(<.001)	-	-.281(<.001)
낙관적 편견	신앙성숙도	-.264(<.001)	-	-.264(<.001)

스와 낙관적 편견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상승효과가 상쇄된다고 할 수 있다.

## 6.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3년여간 지속되고 엔데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및 낙관적 편견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예방행위는 4점 만점에 3.54±.44점으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7]에서 3.47점~3.7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측정도구는 달랐으나 코로나19 예방행위는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의 경우 1.99점~3.20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18-22].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예방행위가 수업이나 실습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었고 예비의료인으로 민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행위를 더욱 열심히 수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

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의 실천,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하는 한국 교회의 목소리[23,24]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감을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신앙성숙도는 5점 만점에 4.21점으로 높았으며,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신앙고백성 4.45점, 교회생활성 4.05점, 사회생활성 3.93점이었으며,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신앙성숙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성숙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개인의 안위나 손상보다는 교회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신앙성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실천의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신앙공동체의 특징[24]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집단적 의식에 의해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지는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의 총합으로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책임주체와 실천의지가 결합된 형태로 표출되어[22] 신앙공동체와 지역사회 건강유지를 사명으로 여기는 기독교인의 특성이 코로나19 예방행위를 더욱 열심히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앙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데,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성원 간에 공유된 믿음[25]을 의미하는 데, 비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코로나19는 구성원 누군가의 문제가 다른 구성원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26].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자료[27]를 보면 확진으로 인한 본인의 건강보다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고,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감염을 감소시키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충실히 지켰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는 2.86점(5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28-33]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2.49~3.28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Jo와 Cho(2021)의 연구에서는 4점의 높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측정도구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나 <코로나19 49차 인식조사>[34]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물었을 때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73%로 가장 높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큰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11,33]와도 동일한 결과였다. 이는 코로나19 예방행위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대상자들은 이를 감내하고 건강예방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 편견은 7점 만점에 2.94점으로 낮았으며 낙관적 편견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35,36]에서 낙관적 태도가 감염과 관련된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낙관적 편견이 정적 조절효과를 보인 결과[37]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38,39]에서는 낙관적 편견과 예방행동의도, 압 예방수칙 건강행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Jeong과 Kang(2021)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낙관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인 성향적 낙관성(Dispositional Optimism)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성향적 낙관성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만, 비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40]. Jeong(2022)의 연구에서는 낙관적 편향이 코로나19 예방행위의 범주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향후 질병예방행위나 건강증진행동 촉진을 위해서는 성향과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행위는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및 낙관적 편견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매개효과에서는 신앙성숙도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정적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낙관적 편견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쳐,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는 높아지지만,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낙관적 편견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예방행위의 상승효과가 상쇄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건강행위를 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9.4%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 예방행위는 건강신념, 주관적 규범, 공동체 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19],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된 장애성, 사회적지지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21], 미디어 이용과 낙관적 편견[40]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 주관적 규범, 공동체 의식은 코로나19 예방행위를 55.1%,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된 장애성, 사회적지지는 코로나19

예방행위를 53.1% 설명하였고, 미디어 이용과 낙관적 편견은 17.9%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대면예배를 드렸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집단 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영향요인으로 신앙성숙도의 효과를 증명하였으므로, 타 종교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학교 등 집단생활에서 신앙성숙과 공통점을 가진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킨다면 감염예방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7.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낙관적 편견과 코로나19 예방행위의 관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코로나19 예방행위는 신앙성숙도, 코로나19 스트레스 및 낙관적 편견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신앙성숙도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예방건강행위에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9.4%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예방행동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크지 않아 향후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와 긍정심리자본, 부정심리자본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고, 공동체의 건강행위의 증진을 기대한다.

## 사 사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Changshin-2021-016).

## 참고문헌

- [1]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oronavirus Disease-19, Republic of Korea.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http://ncov.mohw.go.kr/>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Religious facilities, indoor sports facilitie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are recommended to suspend operations for 15days, (202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664](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664)
- [3] Cho, H.J. The Effect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piritual Maturity on Church Dedication and Loyalty in the Era of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vol.67, pp.249-276, (2020).
- [4] Lee, M.H. The Study of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under COVID-19: Focusing on the Result of the Survey of Korean Christians' Perception on the Major Issues of the Year of 2020, *Theology and Praxis*, vol.73, pp.943-972, (2021). DOI: 10.14387/jkspth.2021.73.943
- [5] Yoon, T.H. Back briefing by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ur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fact, there was no corona from the church", (202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64>
- [6] Yang, H.J. Responding to negative emotions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3, pp.135-143, (2020). DOI: 10.17703/JCCT.2020.6.3.135
- [7] Salari, N., Hosseini-Far, A., Jalali, B., Vaisi-Raygani, A., Rasoulpoor, S., Mohammadi, M., Rasoulpoor, S., and Khaledi-Paveh, B. Prevalence of stress, anxiety, depressio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Global Health*, vol.16, no.1, Article 57, (2020).
- [8] Lee, D.H., Kim, Y.J., Lee, D.H. Hwang, H.H., Nam, S.K., and Kim, J.Y.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2119-2156, (2020).
- [9] Korea Research.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hatred seen through COVID-19, (2020). [https://www.hrc.co.kr/InfoCenter/Project\\_View.aspx?boardkey=kproject179](https://www.hrc.co.kr/InfoCenter/Project_View.aspx?boardkey=kproject179)
- [10] Park, H.J. A Study on Communication Message Strategies to Promote Disease Prevention Behavior,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11] Kwon, M.S. and Choi, Y.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related to Tuberculosi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Knowledge, Attitude and Optimistic Bias related to Tuberculosi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7, no.3, pp.236-245, (2020). DOI: 10.7739/jkafn.2020.27.3.236
- [12] Basset, R.L., Sadler, R.D., Kobischen, E.E., Skiff, D.M., Merrill, R.D., Atwater, B.J., and Livermore, P.W. The shepherd scale: sepa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9, pp.335-351, (1981).
- [13] Lee, Y.W.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Maturity, Counselor Qualifications and Counseling Expertise,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4] Kim, E.H., Park, S.Y., Lee, Y.J., and Park, H.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VID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22, no.1, pp.141-163, (2021). DOI: 10.15703/kjc.22.1.202102.141
- [15] Park, H.J. A Study on Communication Message Strategies to Promote Disease Prevention Behavior, Kyung He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16] Seo, Y.M., and Choi, W.H. COVID-19 Prevention Behavior and Its Affecting Factor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4, pp.215-225, (2020). DOI: 10.12811/kshsm.2020.14.4.215
- [17] Park, S.J., Han, J.E., and Kwak, K.H.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for COVID-19 upon the nursing intention for patients with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1, pp.13-23, (2021). DOI: 10.34089/jknr.2021.5.1.13
- [18] Han, S.J., and Lee, J.H.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s of COVID-19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7, pp.283-294, (2021). DOI: 10.15207/JKCS.2021.12.7.283
- [19] Kim, H.S., and Kim, Y.H. Influencing Factors on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33, no.2, pp.196-206, (2022). DOI: 10.12799/jkachn.2022.33.2.196
- [20] Ha, Y.S., and Na, Y.J.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ractice Associated with COVID-19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7, pp.349-359, (2021). DOI: 10.15207/JKCS.2021.12.7.349
- [21] Jo, H.U., and Cho, E.H. The Impact of COVID-19 on Health Preven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34, no.2, pp.115-122,

- (2021). DOI: 10.15434/kssh.2021.34.2.115
- [22] Kwak, J.H., and Yoon, S.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Believers' Faith Maturity, Social Welfare Consciousness, and Pastor's Servant Leadership,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5, no.2, pp.243-274, (2018).
- [23] Oh, Y.S., and Kim, M.S. The Effects of Acceptance Action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on Faith Maturity and Strengths Knowled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vol.26, no.1, pp.127-161, (2018). DOI: 10.17841/jocag.2018.26.1.127
- [24] Kim, J.Y. A Study on Integrated Spirituality in the Post Covid-19 Era, *Theology and praxis*, vol.73, pp.281-306, (2021). DOI: 10.14387/jksph.2021.73.281
- [25] Sung, S.W.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public role of Korean Churches to pursue 'the common good' as an ethical value of 'the new normal' after 'the Covid-19',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vol.47, pp.139-169, (2020). DOI: 10.21050/CSE.2020.47.05
- [26] Jeong, A.S. Our communities post-COVID-19.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9, no.4, pp.300-308, (2020).
- [27] Boyd, N.M., and Martin E.C. Sense of community responsibility at the forefront of crisis management.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pp.71-83, (2020). DOI: 10.1080/10841806.2020.1765288
- [28] Kim, G.C. COVID-19 risk perception is highest in one year. *The Naeilshinmoon*. 2021, February 1; Sect, 01.
- [29] Choi, A.R., and Kim, H.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VID-19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1, pp.767-782, (2022). DOI: 10.22143/HSS21.13.1.54
- [30] Kim, S.Y. A convergence study of stress caused by the epidemic of COVID-19,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6, pp.423-431, (2020). DOI: 10.15207/JKCS.2020.11.6.423
- [31] Jang, I.S.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on the perceived stress and faith maturity of christian university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7, no.2, pp.328-339, (2020). DOI: 10.12925/jkocs.2020.37.2.328
- [32] Hong, S.h.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0, pp.301-310, (2021). DOI: 10.22251/jlcci.2021.21.20.301
- [33] Kim, J.Y. Impact of COVID-19 related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Adaptation t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6, no.8, pp.379-385, (2022). DOI: 10.21184/jkeia.2022.12.16.8.379
- [34] Lee, S.Y. [COVID-19] 49th perception survey (situational awareness, public entity trust, etc.). Korea Research Opinion Center, (2022).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683>
- [35] Park, S.H., Lee, S.H., and Ham, E.M.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tic Bias about Health Crisis and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03-407, (2008).
- [36] Kim, H.R., Choi, E.Y., Park, S.Y., and Kim, E.A.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mong Medically Inclin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7, no.4, pp.428-437, (2020). DOI: 10.7739/jkafn.2020.27.4.428
- [37] No, J.J. Influences of Healthcare We-media Uses and Optimidtic Bias on COVID-19 Prevention Behavior,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21).
- [38] Kim, I.S., and Heo, J. Effect of Media Use, Social Circumstances, and Optimistic Bias on

- COVID-19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Crisisonomy*, vol.17, no.11, pp.47-61, (2021). DOI: 10.14251/crisisonomy.2021.17.11.47
- [39] Baek, S.Y.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National Cancer Prevention Practices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29-37, (2020). DOI: 10.14400/JDC.2020.18.9.029
- [40] Jeong, Y.J., and Kang, J.R. The effect of Negative Affectiv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prolonged COVID-19: As a mediating effect on Optumis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1, pp.35-45, (2021). DOI: 10.22251/jlcci.2021.21.21.35
- [41] Jeong, H.J. The Study on the impact of optimistic bias and control illusion in COVID 19 Preventive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2, 223-233, (2022). DOI: 10.15207/JKCS.2022.13.02.223

---

(접수: 2023.01.31. 수정: 2023.02.16. 게재확정: 2023.02.21.)